

# 2018학년도 동계 해외 역사문화 탐방 보고서

- 지역 : 중국시안(서안)  
 - 일정 : 2018년 11월 7일(수) ~ 2018. 11. 10(토) : 3박 4일

중국이란 대륙을 한번 도 경험한 적이 없지만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여 2018학년도 동계 해외 역사문화 탐방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책으로만 읽어 보았던 삼국지의 수도 장안(시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던 역사문화 탐방이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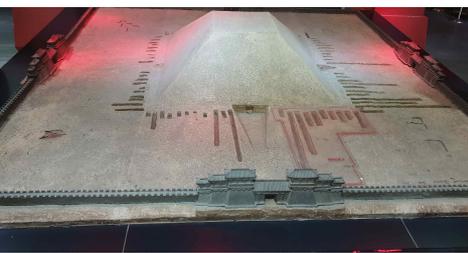
## [제1일차]

인천국제공항 2청사 미팅장소(06시 30분)에 늦을까 염려되어 입동을 알리는 새벽 비를 맞으며 공항에 도착하였다. 2018. 11. 3일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얼굴을 뵈어서 낯설지 않은 모습들을 뵈니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인솔자의 안내를 받으며 출국하였다.

중국 시안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수속을 받고 곧장 빗속을 가르며 한양릉 박물관을 향하였다.

		
<p>&lt;해외 역사문화 탐방 팀 단체사진 &gt;</p>	<p>&lt;중국 서안공항&gt;</p>	<p>3박 4일 동안 함께 한 김하나대리 (왼쪽)와 현지 가이드 안용(오른쪽)</p>

<1. 한양릉>은 진시황의 병마용과는 전혀 다른 특색을 지닌 인물 테라코타(도용) 5만여 장이 매장되어 있어서, 시안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라고 한다. 시안 일대에 산재한 황제들의 무덤 중에서 유일하게 발굴되어 '중국 최대의 지하 박물관'으로 불린다.

		
<p>&lt;입구에서 현지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는 역사문화 탐방 일행들&gt;</p>	<p>&lt;지하 박물관 외형모습&gt;</p>	<p>&lt;지하 박물관 모습의 일부&gt;</p>

한나라는 진나라가 멸망한 이유를,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대규모 토목 공사로 징집하여 희생을 강요한 데 있다고 보았으며, 경제는 한나라가 강대국으로 번성하는데 이바지한 인물로서 중앙 집권제를 공고히 다지고, 세금을 과감히 낮추고, 화폐를 사사롭게 주조하는 일을 전면 금지했으며, 외교력을 발휘해 불필요한 군비 지출을 줄이면서 민심이 크게 안정된 시대를 열었다고 한다. 경제가 제위한 16년을 가리켜 '문경지치'라 부르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한나라의 도용들은 소박하다. 키가 60Cm로 진시황의 병마용에 비하면 3분의 1크기. 지하 박물관에서 생생한 발굴 현장과 도용을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2. 도자기 체험> 이어서 도자기(도용) 빚기 체험을 하기 위해 버스로 이동하였다.

도자기(도용)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경험 또한 색달랐다. 과거에 중국 사람들이 흙으로 인간이나 동물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 죽은 사람과 함께 매장한 것으로, 도용 또는 '테라코타'라고도 하며, 전국 시대부터 당나라까지 유행하였으며, 명·청 시대에도 명맥이 이어졌다고 한다.

		
<p>&lt;도자기를 빚고 있는 모습&gt;</p>	<p>&lt;사람모양 도자기(도용)&gt;</p>	<p>&lt;탁본 만들기&gt;</p>

어릴 적 찰흙으로 사람이나 동물 등을 빚어 본 경험이 있었기에 도자기 및 탁본 만들기 체험이야 말로 나름 어린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 행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 [제2일차]

시안(西安)시내에서 동쪽으로 30km떨어진 리 산 일대는 알아주는 온천지대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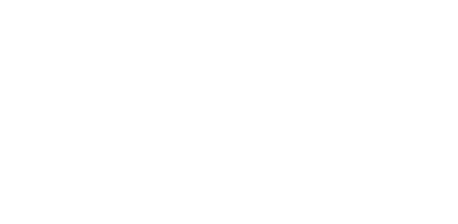
### <3. 화청지>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버스로 약1시간 정도 소요되는 임동현으로 이동, 3,000년 전 주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까지 황제와 조정 대신들이 애용했던 온천이자, 당나라 6대 왕이었던 현종과 양귀비의 로맨스 무대였던 화청지를 조별로 둘러보았다.

		
<p>&lt;당 현종과 양귀비 조형물&gt;</p>	<p>&lt;조별(3조)모임 단체사진 1&gt;</p>	<p>&lt;조별(3조)모임 단체사진 2&gt;</p>

747년에 현종은 온천을 좋아하는 양귀비를 위해서 이곳에 대규모 공사를 실시하여, 온천을 확장한 것은 물론, 새로이 궁전을 짓고 궁전 주변을 성벽으로 둘러싸 '화청궁'이란 별궁을 완성했다. 양귀비는 서시, 왕소군, 초선과 함께 중국의 4대 미인으로 꼽힌다. 그녀는 현종보다 35살이나 어렸고, 심지어 현종의 18째 아들인 이모의 부인이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였던 현종이 며느리의 미모에 반해서 부인으로 삼은 것이다. 호사가들은 중국 역사상 둘도 없는 태평성세를 구가하던 당나라가 멸망한 이유 중 하나는, 현종이 양귀비에게 눈이 멀어서 정치에 해이해져서라고 말한다고 한다.

### <4. 병마용 갭>박물관 : 이어서 진시황의 사후 세계를 지키는 진시황 병마용 박물관을 둘러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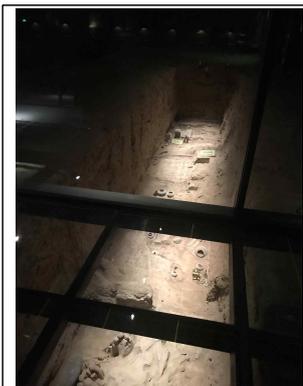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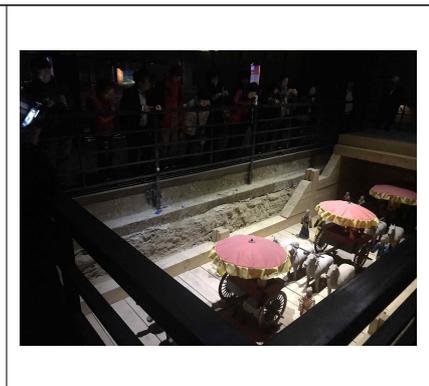
		
<p>&lt;진시황병마용박물관 앞&gt;</p>	<p>&lt;제1호 갭&gt;</p>	<p>&lt;제3호 갭&gt;</p>

병마용 박물관은 진시황의 사후 세계를 지키는 병사들로서 1974년 우물을 파던 농부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된 병마용

파편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2,200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던 진시황릉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병마용이 묻혀 있던 갱은 진시황릉에 딸린 180개 부장 갱의 일부로 진시황릉의 가장 바깥 둘레에 있는 지하 갱에서 흙으로 구운 병마용이 대량 출토되었다. 병마용은 진시황의 사후 세계를 지키는 병사들이라고 한다. 놀랍게도 출토된 병사들 얼굴이 저마다 다르고, 실제 사람처럼 키가 170~180cm에 달했다. 예술성으로 따져도 현실주의를 완벽하게 따른 걸작이었다.

가장 먼저 발굴된 1호 갱에만 6,000점의 병마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중 완벽하게 복원을 마친 1,050여 점의 병사가 발견 당시의 대형으로 서 있다. 2년 뒤인 1976년에 2호와 3호 갱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병마용 갱은 중국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고 한다.

**<5. 지하박물관> : 대량의 도용(흙으로 인간이나 동물 모양의 인형)이 발굴된 지하 갱도를 둘러보았다.**

		
<p>&lt;통유리 내부 모습&gt;</p>	<p>&lt;가이드설명에 집중하는 모습&gt;</p>	<p>&lt;내부 모습의 일부&gt;</p>

바닥에 통유리를 깔아 지하 갱의 원형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설계했는데, 통유리 밑으로 아기자기한 도용이 줄지어 서 있다. 한나라의 도용은 생김새가 모두 비슷비슷한 편이며, 진시황의 병마용보다 표정이 밝아서 친근하게 느껴진다. 여성, 남성, 환관 등 인간도용과 돼지, 닭, 개, 말 등 가축 도용도 즐비하다. 재미있는 것은 도용이 옷을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라는 것. 덕분에 누구나 쉽게 남녀를 구별할 수 있다. 원래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천이 썩어서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사람 도용은 모두 팔이 없는데, 이는 팔을 나무로 제작해서 흙으로 만든 몸체에 부착했기 때문이다. 2,000년이란 세월을 지나오며 옷과 함께 나무 팔이 자연 부식되어 자취를 감췄다. 다리를 꺾 벌리고 춤추는 듯한 자세의 도용은 기마병이라고 가이드는 설명하고 있다.

**<6. 진시황릉> :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불가사의한 무덤입구에서 설명을 듣고 숙소로 이동**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진시황릉 앞>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스스로를 황제라 칭했던 시황제는 38년간 70만 명을 동원해서 사후에 묻힐 지하 궁전을 조성했다. 진나라의 도성이었던 셴양을 모방해 지었는데, 총면적이 56.25km<sup>2</sup>에 달하며 병마용 박물관에서 1.5km떨어져 있다. 현재의 고고학 발굴 기술로는 유물을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발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무덤 내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앞으로 50년 동안 발굴 계획이 없다고 한다.

진시황릉 내부는 사마천이 쓴 사기에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무덤 천장에 천체를 그렸고, 바닥에는 진나라 제국의 지리를 묘사했으며, 수은을 사용해 강과 바다를 표현했다고 한다. 무덤에 매장된 진귀한 보석과 유품을 지키기 위해서 침입자가 나타나면 즉각 석궁이 발사되도록 설계했다고 한다. 무덤 입구를 영원히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축조

공사가 마무리되자 인부 모두를 산 채로 매장했다고 한다.

1980년대 물리학적 조사를 통해 사기의 기록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무덤 안 12,000㎡ 구역에 수은이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2007년에는 무덤을 덮고 있는 흙 표면으로부터 35m 아래에 능묘 건축의 핵심인 '지하궁전'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고 한다. 진시황릉을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내부의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없을뿐더러 76m 높이의 봉분을 밟고 올라가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병마용 박물관 입장권을 구입하여 3곳을 둘러 볼 수 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할 만한 것은 없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는 시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비문 앞에서 기념사진만 한 컷 하고 돌아왔다.

2일째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장안성(시안)의 남문주변의 야경**이 멋있을 것 같아 희망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번영기를 이용하여 물어 물어 갔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참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 [제3일차]

#### <7. 산시역사박물관 / 시안박물관 / 비림박물관 >

	<b>[중국의 3대 박물관 중에서도 으뜸]</b> 중국 최고의 박물관으로 꼽히는 산시 역사박물관은 신석기 시대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산시 성 일대에서 출토된 유물 38만점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왕조가 시안 일대를 수도로 삼았던 만큼 국보급 문화재가 매우 풍성한 곳이다.
<b>산시 역사박물관</b>	
	<b>[시안의 과거를 한눈에]</b> 산시 역사박물관이 워낙 유명해서 상대적으로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볼거리가 아주 풍성한 곳이다. 시안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물들이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전시되어 있다. 고도 시안 전시실에는 진나라 때부터 명·청대에 이르기까지 시안의 변천사를 사진과 유물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특히 훗 중앙에 당나라 때의 장안성을 1:1,500비율로 만든 모형이 있어 눈길을 끈다.
<b>시안박물관</b>	
	<b>[중국을 대표하는 서예가들의 필체가 한자리에]</b> 본래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였다. 현재는 송나라 때부터 900년에 걸쳐 시안에서 수집한 비석 1,000여 점을 보유한 박물관이다. 총7개 전시실에 진나라부터 당나라까지의 국보급 서예작품이 총망라되어 있다. 글과 그림을 새긴 비석들이 열대 우림처럼 뻗뻗해서 '비림'으로 불린다. 한자를 예술로 승화한 서법은 한자 문화권을 대표하는 독특한 문화로, 서예에 관심 있는 여행자라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명소이다. '서성'이라 칭송받는 왕희지(303~361년), 서예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범으로 삼는 구양순(557~641년), 당대 해서의 모범이 된 안진경(709~785년), 우리나라 서예에 큰 영향을 끼친 조맹부(1254~1322년) 등 저명한 중국 서예가들의 필체가 한자리에 모여 있다.
<b>비림박물관</b>	

<8. 삼장법사 동상 / 대자은사·대안탑 / 천복사·소안탑 >



<대은사 앞 광장 - 삼장법사 동상>

대은사 앞 광장은 또 하나의 사진 촬영 포인트다. 경장, 율장, 논장의 불교 경전에 정통해서 삼장이라 불렀던 현장의 동상이 우뚝 서 있는데, 동상 너머의 대안탑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었다. 동상과 대안탑을 바라보노라면 실크로드 한복 판에 서 있는 듯하다.

<대자은사-대안탑>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음을 실감케 하는 장소

648년 당 태종의 아들 이치(당나라 3대 황제인 고종)가 돌아가신 어머니 '문덕황후'를 추모하기 위해 지은 황가 사원이었는데, 당나라 말기 전란 때 불에 타 황폐해졌다. 1887년에 보수하면서 본래 규모보다 작게, 7분의 1로 축소해 지었다고 한다. 지금은 인도에서 돌아온 현장이 머물면서 사원 뒤뜰에 있는 대안탑은, 652년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법문 경전을 보관할 목적으로 세운 것이다. 처음에는 5층으로 지었는데 파괴되었고, 재건하는 과정에서 10층으로 높여 지었으나, 지금은 7층 전탑으로 높이가 64m에 달한다. 위로 갈수록 탑의 폭이 좁아지고, 층마다 아치형 창을 낸 것이 특징이다. 별다른 장식을 하지 않았지만 고풍스럽게 아름답다.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탑에 올라가서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데 시간상, 건강상 무릎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였다.

<천복사-소안탑>

원래 천복사는 당나라 태종의 딸 양성 공주의 고택이었다고 한다. 648년에 사망한 고종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황실에서 '현복사'라는 이름의 사당으로 꾸몄다. 690년 '천복사'로 개칭하면서 불교 사원으로 탈바꿈했다. 자은사와 비교하면, 소박하지만 수령이 1,000살 넘는 고목이 많아서 고즈넉한 분위기가 매력 있다. 탑모양이 대안탑과 매우 유사하고 크기가 작아서 소안탑이라고 부른다. 원래는 높이 46m, 15층으로 지었는데, 16세기 중반에 발생한 지진(혹설은 벼락을 맞았다고 함)으로 꼭대기 2층이 무너져 내려 13층이 되었고, 현재 높이는 43.39m에 달한다.

대안탑에 비하면 외관이 다소 초라하지만, 무려 1,300년간 70여 차례 지진을 겪으면서 3차례 금이 가고 갈라졌다가 다시 맞붙어 불가사의로 꼽힌다고 한다.

<9. 회족(후이족)거리> : 1년 365일 왁자지껄한 야시장

저녁식사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회족거리(고루 뒤편 베이위안먼 거리)는 시안에 사는 후이족의 심장부다. 중국에 들어온 아랍인들이 중국인과 결혼을 통해 정착하면서 후이족이 되었다. 후이족이 처음 정착 생활을 한 지역이 산시 성으로, 아편 전쟁 때는 최고 170만 명에 달했다. 현재 산시 성에 거주하는 후이족은 5만여 명에 불과한데, 시안에서 후이족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지역이 바로 이 곳이다.



우리는 3개조로 나뉘어 조별 미션을 수행하였다.

길거리 간식 중에서 납작한 빵 가운데를 반으로 갈라 간장에 조린 고기를 듬뿍 넣어 주는 러우자모 먹기 미션.  
 각종 꼬치구이 먹기 미션 등을 수행하고 인증사진을 찍는 미션이었다.  
 이색적인 미션을 수행하는 재미가 독특하면서도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9. 종고루 광장(종루, 고루) >

	<p><b>[고대에도 현대에도 변함없는 시안의 랜드마크]</b>                  시안의 동서남북 4개 대로가 만나는 중심에 있어서, 언뜻 보면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보인다. 오래전 종루는 새벽을 깨우는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종루에서 타종을 하면 밤새 닫혀 있던 성문이 일제히 열렸던 것이다. 1384년 종루가 처음 세워졌을 때 지금 위치에서 서쪽으로 두 블록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1582년에 건물을 통째로 현재 위치로 이동해 왔다. 중국 전역에 있는 수많은 종루 중에서 역사와 예술적 가치가 으뜸으로 꼽힌다. 높이 36m의 3층 누각 꼭대기에 솟은, 상투처럼 생긴 나무 심지가 해 질 녘이면 아름답게 빛난다. 구리를 덧씌우고 도금까지 해서 멀리서도 반짝반짝 빛난다. 이제 종루는 운전자에게는 방위를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여행자에게는 전망대 역할을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종루</p>	<p><b>[시계가 없던 시절 밤을 알리던 장소]</b>                  종루에서 서쪽으로 200m 떨어진 고루는 종루보다 4년 앞선 1380년에 축조되어서, '밤을 알리는 시계' 역할을 했다. 고루에서 북을 치면 시안의 성문이 일제히 닫혔던 것이다. 전체 높이가 33m로 종루보다 약간 작지만 명나라 초기 목조 건축의 정수로 꼽힌다. 현재 모습은 1740년에 대대적으로 보수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고루</p>	

이로서 삼일 쯤 일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덕발장(만두집)으로 향했다.  
 교자연(만두) 빚기 체험과 14대 왕조를 뜻하는 14가지의 만두를 먹으면서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제4일차]

어느 듯 3박 4일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서안성벽 관광을 마치고 KE808 12시 55분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향하며,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21기 동계 해외 역사문화 탐방을 할 수 있도록 배려주신 학교 및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중국의 웅장함에 놀랐지만, 우리나라가 더욱 섬세하고 아름다움을 새삼 깨닫게 해 줍니다.

감사합니다.